

TV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00 굿모닝! 채널A입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00 생방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00 너는 내 운명 30 월화미니시리즈 <컬러 오브 유먼>(재)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40 노컷~!김수미의 쇼킹(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40 해피엔드(재)	00 행복한 고실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TV 특강(재)	00 테마다큐 한국의 미 2부 <도자기&한식>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0 채널A 뉴스와 경제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12	00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재)	00 MBC 뉴스 15 지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건강클리닉
20 여행이 좋다(재)	00 글로벌 성공시대(재) 50 아름다운 사람들(재)		05 주말연속극 <천변의 입맞춤>(재)	30 한국의 쇼스페셜
20 이산가족공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10 세상사는 이야기(재)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10 특집 신동소(재)		00 SBS 뉴스 10 세상발견 유레카(재)
30 그 여자 그 남자(재)	00 KBS 스페셜(재) 통일대기획 제2편 <북한을 보는 두개의 시선>	00 KBS 뉴스타임 05 주류링 동물탐정(재) 35 달의 신나는 우주여행(재)	00 키즈 어드벤처 여기가 어디야 50 MBC 뉴스	10 인문학 열전
30 개그시대(재)	00 KBS 뉴스 10 KBS네트워크 특선 사회제2	00 TV 유치원 30 파워 마스크	00 뽀뽀뽀 이이조아 30 안녕 토토비	00 주블스 30 꾸러기 탐구생활
40 채널A 뉴스네트워크	00 KBS 뉴스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00 공감 특별한 세상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다리로 만나는 세계
00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시는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투데이
00 생방송 연예인사이드	00 KBS 뉴스 7 30 스키아웃	45 스타인생극장 <서인영>	45 일일시트콤 <하이리! 짝은다리의 역습>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내달 꽃남이>
00 해피엔드 30 채널A 뉴스830	25 일일연속극 <당신은미아>	20 세계는 지금 55 비타민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이라> 55 MBC뉴스데스크	00 특집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15 채널A 스포츠 투나잇 20 수목 시리즈 <출근대 이채기>	00 KBS 뉴스 9	55 수목 드라마 <영광의 재인>	55 수목미니시리즈 <나도, 꽃>	55 SBS 대기획 <부림의 나무>
40 김수미의 쇼킹	00 환경스페셜 숲과의 회화 <키세우원> 50 아름다운 사람들			
50 너는 내 운명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05 TV50년 특집 K-POP월드 페스티벌	05 황금어장	15 짝
20 채널A 한밤뉴스 30 컬러 오브 유먼(재)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55 TV특강	25 MBC 뉴스 24 35 지원봉사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25 나이트라인 35 휴먼다큐 나눔

“촬영 중 너무 뛰다보니 얼굴이 늘어 버렸어요”

내년 초 개봉작 ‘페이스 메이커’ 배우 김명민



<왼쪽부터 김명민·고아라·안성기>

“촬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 영화 하게 된 걸 많이 후회했어요. 스태프가 내 얼굴을 보면서 시작할 때에 비해 10년은 늙은 것 같다고 했는데, 내가 봐도 얼굴이 많이 늙긴 한 것 같아요.”

배우 김명민은 20일 서울 한 극장에서 열린 영화 ‘페이스 메이커’ 제작보고회에서 촬영 중의 고생담을 이렇게 전했다.

그는 내년 1월 19일 개봉하는 이 영화에서 마라토너의 페이스 조절을 돕기 위해 대회에서 전체 42.195km 중 30km만을 뛰어야 하는 페이스 메이커를 연기했다.

그는 영화 촬영 중 끊임없이 뛰었다며 “보통 영화 찍을 때 ‘이 정도면 끝나겠지’ 하는데, 이 영화처럼 안 끝난다고 느낀 영화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명민은 이 영화에서 강한 인상을 표현하기 위해 입 안에 인공치아까지 끼었다고 했다. 그는 “이 캐릭터를 보고 병든 말이 쉬

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말이 힘들 때 인물이 드러나고 거친 호흡을 내는 것을 보면 가장 안스럽다. 이 인물의 입부분을 어떻게 강조할까 싶어서 인공치아를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에는 고아라가 주인공과 우정을 나누는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안성기가 마라톤 감독으로 출연한다.

고아라는 “장대높이뛰기 연습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발목 인대를 다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금방 나아졌다”고 말했다.

안성기는 “후배들과 스태프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고 같이 뛰고 싶은데 스텝위치를 들고 계속 기록만 재야 해서 답답했다”고 했다.

안성기와 고아라는 이 영화와 같은 날 개봉하는 ‘부러진 화살’과 ‘파파’에도 각각 주연으로 출연해 자신의 영화들이 같은 시기에 경쟁하는 상황을 보게 됐다.

이에 대한 질문에 안성기는 “영화를 시작한 이래 동시에 (두) 영화가 개봉하는 게 처음이라 당혹스럽다”며 “죽을 맛이고 집중을 못 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날 행사 중간에는 ‘국민 마라토너’였던 이봉주 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영화에 카메라가 없으면 선수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페이스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연습

올해 최고 시청률은 아시안컵 축구 한일전

올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은 아시안컵 축구 한일전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청률조사회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연초인 지난 1월25일 밤 11시8분 KBS 2TV가 위성 생중계한 아시안컵 한일전이 37.7%의 시청률을 기록해 올해 가장 많은 시청자가 본 프로그램으로 집계됐다.

4위는 현재 방송 중인 KBS 주말극 ‘오작교 형제들’로 25%, 5위는 KBS가 중계한 아시안컵 축구 한국-호주전으로 24.7%, 6위는 MBC가 중계한 아시안컵 축구 한국-인도전으로 24%를 각각 기록했다.

이어서 KBS 주말연속극 ‘사랑을 믿어요’(23.6%), KBS 일일극 ‘우리집 여자들’(20.3%)이 7-8위를, KBS ‘해피선데이’가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높은 19.7%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에서는 9위를 차지했다. 10위는 KBS 일일극 ‘당신만이 야로 1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월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전국 3134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1일(음 11월 27일 庚戌)

36년생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 종일 웃음이 만만할 것이다. 48년생 바쁜 하루 속에서 보람을 느낀다. 60년생 철저히 믿었다가는 큰 일 날 수 있다. 72년생 부친의 건강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라. 84년생 바쁜 와중에서 지인의 손길이 도움 되겠다. 행운의 숫자 : 91, 27	42년생 상대의 처세에 따라 대응하려 하지 말고 조건 없이 회사하라. 54년생 가진 것을 이웃에게 베풀면 크게 복 받으리라. 66년생 음달에도 햇볕 볼 날이 반드시 있으리라. 78년생 다시 점검한 후 실행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67, 62
37년생 의문점 보이나 살펴보고 결정하라. 49년생 자신에 대한 환대나, 푸대접이나는 처신하기 나쁠다. 61년생 신체적으로 불편이 올 수 있으나 일시적이다. 73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나설 필요 없겠다. 85년생 예상대로 진행되지만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7, 79	43년생 육친이 불화하면 집안이 망하게 됨을 잊지 말라. 55년생 늦은 시간에 기다리면 사람이 온다. 67년생 변변치도 않은 이익을 피하려고 했다가 공연히 손해만 보겠다. 79년생 고생스럽지만 보람찬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6, 08
38년생 속보이는 연정을 하다가는 독살의 표적이 되고 말리라. 50년생 앞선 데 달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문란한 기강을 보고 크게 회의를 느낄 수 있다. 74년생 오늘은 마음 편히 쉬어라. 행운의 숫자 : 73, 85	44년생 내키지 않은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56년생 감정 있는 이의 방해가 시작되니 대비하라. 68년생 선택의 여지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는 형상이다. 80년생 인정할 것은 수긍해야 타협이 이루어지느니라. 행운의 숫자 : 25, 92
39년생 덤으로 생긴 것은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51년생 해묵은 일이 처리되기 시작한다. 63년생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 75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34	45년생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많은 갈수록 보태지는 법이다. 57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매사가 순조롭다. 69년생 대우받으려거든 구실을 똑바로 해라. 81년생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해야 효과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6, 44
40년생 관영이라고 하더라도 폐공이라면 굳이 따를 필요가 없느니라. 52년생 이익 도모가 일반 대중에 대한 피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하라. 64년생 좋은 일을 만날 수다. 76년생 가정에서 좋은 일이 생길리라. 행운의 숫자 : 26, 18	46년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부끄러움 없어야 하느니라. 58년생 마음 편한 하루가 되겠다. 70년생 더 진행하면 반전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82년생 수하인과의 돈 거래는 손재를 상징한다. 행운의 숫자 : 12, 84
41년생 엇비슷한 조건 속에서 하루 종일 선택의 고민만 하게 된다. 53년생 예정대로 무난하게 진행되겠지만 추가는 자제하라. 65년생 실제로 현장에 임해야 이루어지느니라. 77년생 손재가 발생하나 크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8, 52	47년생 그토록 갈구하던 것을 찾아내는 집요함의 성취가 있으리라. 59년생 행사가기에 기게 된다. 71년생 원수가 은인이 될 수 있음을 알라. 83년생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02, 9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 환영!” ☎010-9790-8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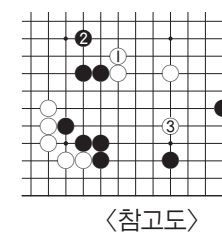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경비록대회

결승국 2보 (22~49)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 白 조영배 5단 (주택관리사회)

참고도

상대를 의식한 착각



<참고도>

백 24로 우상귀를 쳐들어왔을 때 흑 27로 막는 것이 초반 선택의 기로였다. 이 수로는 '가'로 막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으나 실전은 분란을 피할 의미도 있다.

김광식 5단이 흑 33으로 하변견살의 꿈을 키우자 조영배 5단도 백 34를 선수하고 나서 36으로 완만하게 하변을 견제하고 나선다. 이 수로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얇게 둔 것은 다분히 김광식 5단의 파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흑 39로 치받았을 때 백 40이 욕심이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누는 것이 정수로 3까지면 편했다. 흑 47까지를 선수하고 49로 다가가 흑이 두터워졌다.

/오규철 9단 <본보 비독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유 니혼고
Can you teach me how to play? 연주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A : How long have you been playing the piano? B : For about ten years. A : Wow! That's a long time. Can you teach me how to play? B : No problem. A : 피아노를 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B : 약 10년 정도요. A : 와! 오래되셨군요. 저한테 연주법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B : 그럼요. * about ten years. = some[around, approximately] ten years.	臨渴掘井(임갈굴정) 입할 입, 목마를 갈, 팔 굴, 우물 정 임갈굴정(臨渴掘井)은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평소애 준비 없이 있다가 일을 당하여 허둥지둥 서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 경공이 소공에게 노(魯)나라에서 도망쳐온 이유를 묻자, 소공은 주변에 간신과 소인배만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경공은 안자에게 소공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안자는 “무투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불초한 자는 스스로 현명하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자는 수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지고서야 수로를 찾고, 길을 잃고서야 길을 묻는 것은 전쟁에 직면해서야 병기를 만들고 음식을 먹다가 목이 말라서야 물을 마시기 위해 급히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일이니, 아무리 빨리한다고 한들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라며 거절했다. [출전] <안자춘추(晏子春秋)>	加油 jiāyóu 기름 쳐! 파이팅. 중국어로 ‘加油’라고 합니다. ‘기름(油)을 더하다(加)’는 말이지요. 명을 건국한 朱元璋(Zhu yuan zhang 주원장) 휘하에 劉伯溫(Liu bó wen 유백온)이라는 책사가 있었는데, 그는 스스로의 위대함을 諸葛亮(Zhu ge liang 제갈량)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갈량의 묘소를 직접 찾아 갑니다. 묘 안으로 들어가니 묘 안을 비추던 등잔 불이 거의 꺼져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제갈량이라도 묘소의 등불은 이렇게 꺼져가는구나’라고 하며 ‘나는 영원이 꺼지지 않을 등불로 비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미한 등불아래 노란 종이 불이 있어 읽어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老來老矣, 赶快加油! - 유선생. 빨리 등잔 기름 좀 넣어줘”라고 쓰여, 제갈량은 유백온이 그 즈음에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백온은 그 이후로 더 겸손해지고 노력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된 加油가 지금의 파이팅의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明日は都合が悪くて、行けません。 내일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갈 수 없습니다 A : 明日は都合が悪くて、行けません。 B : 明日は都合が悪くて、行けません。 A : そうですか。残念ですね。 B : すみません。また今度お願いします。 A : 내일 미팅이 있습니다만, 함께 여행습니까? B : 내일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갈 수 없습니다. A : 그럼습니까. 유감입니다. B : 미안합니다. 다음에 부탁드립니다. [문법정리] ☞ 형용사의 중첩법 (이유/원인) ▶ 品物が悪くて、買えません。 = 물건이 비싸서 살 수 없습니다. ▶ 気分が悪くて、お先に失礼します。 =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실례 합니다.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